

# 두번째 전주문화재 야행 '인기몰이'

### 줄타기·가곡 등 공연 소리문화관 토크콘서트 밤의 문화재잔치마당 '호우'

전주의 역사와 숨결이 살아있는 다양한 문화재와 전주한옥마을의 색다른 야간 풍경을 다양한 문화·예술공연과 함께 즐기는 문화재 야행이 열렸다.

시와 전주문화재 야행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4일 경기전과 오목대 등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올해 두번째 전주문화재야행을 개최했다.

올해 전주문화재 야행은 조선왕조부흥인 전주의 역사정체성을 알리기 위해 태조 이성계를 메인테마로 삼고, 유·무형문화재를 대한민국 역사문화의 빼어난 작품이라는 해석을 담아 '수작(秀作)'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웠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세계인류무형유산 초청무대인 '인류수작'과 중견국악 연주자 초청무대인 '한국수작', 젊은 국악연주자 및 현대적 국악연주자가 출연하는 '미래수작' 등으로 구분해 유형문화재가 위치한 공간에서 무형문화재 공연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도록 조화롭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야행에서는 메인 스팟인 경기전 광장에서 세계인류무형유산인 줄타기(권연태연희단)와 가곡(전라정가진흥회) 등이 무대에 오르고, 전주문화재야행을 통해 새로운 야간공연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오목대에서는 국악인들의 소리와 기악연주가 한국전통음악 특유의 깊은 울림으로 관객들과 만났다.

소리문화관에서는 전북도 무형문화재 제12호인 약기장 최동식 선생이 거문고 제작 시연과, 선자장 엄재수 선생의 합죽선 제



지난 24일 경기전과 오목대 등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올해 두번째 전주문화재 야행이 열렸다. 사진은 지난달에 열린 야행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체험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작시연 등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체험과 전시, 게임, 해설투어 등 다채로운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가족단위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여기에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한옥마을 골목투어를 통해 전주한옥마을 곳곳에서 펼쳐지는 공연과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을 알짜로 즐길 수 있도록 코스형 패키지로 구성된 '별빛기행'은 최종 도착지인 어진박물관에서 천문과학의콘서트와 천체망원경 체험의 특전까지 포함돼 있어 가족

과 연인들의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밖에, 이번 야행에서는 참가자들이 지난날 개막야행에서 핫 하게 떠오른 큐브형 한지등 만들기 체험과 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 걸린 대형 미라클에서 쏟아지는 현란한 빛 조각의 움직임에 따라 빛이 되는 경험을 하는 등 박진감 넘치는 밤의 문화재잔치마당이 펼쳐졌다. 김경미 전주문화재야행추진단 총감독은 "전주문화재야행을 가장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는 있는 방법인 '모두의 수작' 인기 유료프로그램에 사전예약이 줄을 잇고 있

다"면서 "앞으로 남은 야행을 통해 미라클과 한지등을 통해 더욱 화려해진 전주한옥마을의 야간경관을 즐기고, 보다 친근하게 다가온 문화재의 향유 가능성을 확인하는 잊지 못할 여름 밤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문화재야행은 오는 7월 22일과 8월 26일 2차례의 본야행과 오는 9월 16일로 예정된 폐막야행까지 총 3차례 더 진행되며, 유료프로그램 등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문화재야행추진단(063-288-9937)로 사전예약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 전주시, '청년의 꿈' 진로코칭 콘서트 개최

전주시가 청년예술인들과 손을 맞잡고 진로를 걱정하는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풀어주기로 했다.

전주시와 새라바림 문화예술연구소는 24일 청년소상공간 비빌 1호점(우개)에서 '청년의 꿈'을 주제로 한 진로코칭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전주시 청년들을 위한 진로코칭·성장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의 진로계획 수립과 결정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지역 청년들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도 담겨있다.

이날 콘서트에는 버클리음대 출신의 재즈아티스트들인 이윤현 씨(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와 김태현 씨(재즈 기타리스트), 한국화 아티스트인 신은미 씨(새라바림 문화예술연구소), 해금연주자 김신영 씨(그림소리)가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는 직업세계에 대해 소개하고, 청년과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는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했다.

또한, 참여한 아티스트들은 한국화 퍼포먼스와 해금, 피아노, 재즈기타 연주로 참석한 청년들에게 잊지 못할 생생한 추억을 선사했다. /인재홍 기자

## 전북도립국악원, 29일 남자소리꾼들 초청 공연

전북도립국악원(원장 신통원)의 대표상설공연 2017북요국악예술무대는 판소리 다섯바탕 '남자소리꾼, 그 장중함에 대하여'를 끝으로 상반기 공연일정을 마무리한다.

국악원은 시대와 세대가 공감하는 전통예술로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한다는 목표를 담은 '어우름'을 주제로 총 7회의 공연을 진행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뿐만 아니라 소리(창극단)와 음악(관현악단), 무용(무용단) 등 다채로운 장르의 레퍼토리를 통해 국악 마니아층을 위한 공연방향을 모색했다.

오는 29일 저녁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펼쳐지는 '남자소리꾼, 그 장중함에 대하여'는 창극단 남자소리꾼들이 판소리 다섯바탕의 눈대목을 각기 다른 매력으로 선보이는 무대. 이들은 기백 넘치는 남자 판소리꾼들의 소리로 인물의 감정선을 전할 예정이다.

이날 공연은 남도 민요의 백미로 우리 민족의 슬픔과 한을 승화시킨 민요 '흥타령'으로 시작해 수궁가 중 '배 가르는 대목', 심청가 중 '물에 빠지는 대목', 흥보가 중 '배 맞는 대목', 춘향가 중 '신년맞이 대목', 적벽가 중 '불 지르는 대목'의 판소리를 선보이며, 한시를 바탕으로 떠난 남에 대한 열망과 그리움을 그린 가사가 주를 이룬 남도민요 '육자배기'로 마무리한다.

판소리 눈대목의 주요 장면 중 수궁가는 자리의 핏에 넘어가 수궁으로 들어간 토끼의 간을 깨내려하자 토끼가 상왕을 파악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용왕을 피는 내용을 들려준다.

심봉사가 장승상 댁에 간 청이를 미중 나가다가 개천에 빠져 지나가던 스님이 구해주는 내용의 심청가는 빠른 엮토리장단 부분이 재미를 더한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예매는 홈페이지(<http://www.kukakwon.or.kr>)를 통한 사전 예약제이다. 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연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오후 6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잔여석을 배부 받을 수 있다. /정해은 기자



김도현 명창

## 전주에서 아름다운 곳, 국악으로 담다

### 전통문화전당 창작 공연 '전주8경' ... 작곡에 합굿마을 김형태 예술감독

전주의 아름다운 공간들을 국악으로 담아낸 공연이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개최된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전당 야간 공연 활성화를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치러지는 '문화가 있는 날' 5번째 공연으로 창작 국악공연 '전주8경'을 개최하기로 했다.

'전주8경'은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전주시립놀이로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하고 지난해 전당 상주단체로 활동했던 합굿마을문화생산지조합이 전당 야외마당에서 오후 7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된다.

특히 이번 '문화가 있는 날'부터는 공연 시간이 기존 6시 30분에서 오후 7시로 바뀌고, 다과파티, 그리고 연주 중심에서 중간중간에 토크가 결합된 형태로 공연이 변경되는 등 관객의 참여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 여인의 삶을 통찰하며 스토리가 전개되는 국악연주회 '전주8경'은 기린봉, 한벽루, 전주천변, 남부시장 등 전주의 아름다운 8곳의 공간을 소재로 다룬 창작 공연으로, 시민들에게 친근함을 전할 전망이다. 이번 공연에 연주되는 곡은 합굿마을 예

술감독 김형태씨가 작곡을 맡아 진행했으며, 합굿마을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도록 새로운 리듬과 연주기법을 창작해 주목된다.

한편 7월에는 '국악힐링' 공연, 8월에는 7080여고 졸업반, 10월과 11월에는 대나무로 만든 창작악기와 사물악기, 월드타악기가 어우러진 융복합 공연 월드 타악 '뽕부'가 캐논, 아리랑 등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레퍼토리로 공연될 예정이다.

특히 7080여고 졸업반은 전주 소재 생활문화예술 동호인들과 7080밴드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는 행사로, 공연팀은 물론 관객들이 교복을 입고 체험하며 과거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질 계획이다. /정해은 기자



##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서얼명상관

###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권역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얼영상